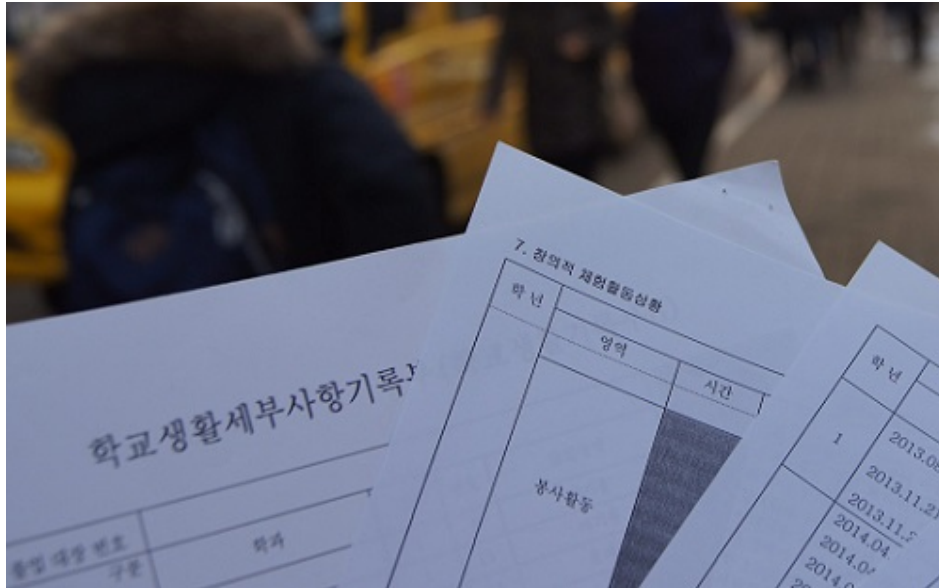


고3 수험생에겐 ‘계륵’ 같은 비교과, 얼마나 해야 ‘적정’일까?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 입력 : 2020.04.14 09:53



동아일보 DB

고3 수험생은 지난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통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학사일정이 온라인이나 다시 시작된 겁니다. 아직 정상적인 학교 활동에는 일부 한계가 있긴 하나, 이제부터는 그간 계획한 대입 전략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본격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지난해 ‘수시 5관왕’을 거둔 두 학생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학 연기로 달라진 상황 탓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순 있지만, 지난해 수시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두 학생의 노력을 통해 어수선한 새 학기를 맞는 마음가집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3 때도 끊임없이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을 펼쳐 대입 전략을 가꿔온 이들의 사례를 통해 자신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힌트를 얻길 바랍니다.

○3학년 때도 이어간 임원활동·동아리활동, 결과는?

학기 초, 고3 수험생의 진학 상담에서 가장 큰 고민은 ‘최종 진로 결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비롯해 총 5곳의 대학에 수시 합격한 광역 자사고 출신 학생 A입니다. A는 물리 교과 역량이 특별히 우수했고, 공학 및 컴퓨터와 관련한 다양한 교내 활동과 교내 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넓은 활동 탓에 도리어 대학 진학 시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당 학생의 주 관심분야를 고려할 때 컴퓨터학부가 가장 가까웠지만, 그간 고교 생활에서 쌓은 다양한 과학적 역량과 비교과 활동을 고려해 입학 시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무학부로 선발하는 카이스트,

포항공대에도 도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A의 관심분야를 고려해 서울대 일반전형 물리교육과를 비롯해 고려대 학교추천 II 컴퓨터학과, 성균관대 학과모집 소프트웨어학과 등에도 지원했습니다.

그럼 A의 3학년 생활은 어땠을까요? 우선 A는 고3 때도 학급회장과 교과 반장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시간을 과도하게 뺏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3 학년에서의 임원활동을 염려하는 학생들도 많습지만, A는 모든 고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일관적으로 유지한 것입니다.

또 1, 2학년 때 진행하던 로봇동아리를 3학년 때도 이어가면서 기계, 응용소프트웨어 분야와 관련된 활동 경험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3학년 때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정규 동아리 대신 자신이 시간을 조절해 참여할 수 있는 자율 동아리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A는 기존의 정규 동아리 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관심 분야의 역량을 쌓았습니다.

독서 또한 컴퓨터와 공학에 관련된 책을 비롯해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등 여러 교과목에 해당하는 책을 골고루 읽은 후 기록함으로써 공부하는 동안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독서 활동을 실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고3 때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두루 한 A 학생은 결국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진로에 국한하지 않고 교과·비교과 활동을 복합적으로 한 성과였다고 평가합니다.

학생 A가 3학년 때 한 교과/비교과 활동	
자율활동	학급회장/교과반장
동아리활동	(정규동아리) 로봇동아리
봉사활동	14시간
독서활동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이제박)’, ‘벤처 타는 프로그래머(정금호)’ 등 총 17권
주요 세특	[프로그래밍(3학년)]: 아두이노를 이용한 팀 프로젝트로 소리 센서를 이용하여 박수치는 정도의 소리가 나면 켜지는 ‘무드등’을 제작하였다고 설명함

○ 3년간 진로희망은 줄곧 법조인, 법학과 대신 행정·자유전공 합격 비결은?

A와 달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줄곧 ‘검사’를 진로희망으로 설정했던 일반고 학생 B의 사례도 소개합니다. B는 1, 3학년 때 학급회장, 2학년 때 학급 부회장 활동을 했던 적극적 학생으로 진로가 명확한 만큼 법조인의 꿈을 더욱 키우기 위해 학생자치법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검사를 희망했던 위에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더 확고히 찾기 위해 간접직업체험, 전공탐색 검사, 직업탐색 등의 진로 활동을 원활히 하였고, 법조인으로서의 지식을 키우기 위해 ‘법의 정신’, ‘합리적 의심’ 등 법률과 관련된 전공 관련 도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율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시사 토론과

뉴스 기사들을 정리하고 글로벌 국가별 이슈 등을 매일 스크랩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관심을 고3 때까지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에서 법학과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민이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꿔 온 B가 전공적합성을 내보일 수 있는 학과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B는 법과 관련된 행정학과와 자유전공학부를 목표로 정한 뒤에 3학년 때 미디어와 사회학 관련 자율동아리를 각각 진행하면서 법, 사회 이슈, 시사 등 전공적합성에 해당하는 역량 개발에 힘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연세대 활동우수형 행정학과’, ‘고려대 학교추천 I 자유전공학부’, ‘서강대 학생부종합(종합형) 사회학전공’, ‘성균관대 학생부종합(계열모집) 사회과학계열’, ‘한양대 학생부교과전형 경영학부(상경)’ 등 5개 전형에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고려대학교 학교추천 I 전형*은 2020학년도까지 1단계를 교과(자기소개서는 무조건 제출)로 3배수 선발하고 2단계를 1단계 성적과 토론 면접점수를 절반씩 반영하는 식으로 선발했는데, B는 토론면접 당시 평소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익숙한 토론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려대는 학교추천 I, 학교추천 II 전형을 학교추천전형으로 통합해 단계적 선발을 폐지하고,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 B의 3학년 때 한 교과/비교과 활동	
자율활동	학급회장/학생자치법정/학생인권교육
동아리활동	(정규동아리) 미디어동아리 / (자율동아리) 사회학동아리
봉사활동	21시간
독서활동	‘법의정신(몽테스키외)’, ‘합리적의심(권영법)’, ‘개인주의자선언’ 등 총 11권
주요 세특	[법과정치(3-1학기)]: 권위주의의 사례로서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청탁, 뇌물 수수를 들고 그 사례의 발생 이유를 관료제의 한계, 권력을 둘러싼 다양한 유착, 뿌리 깊은 연고주의에서 찾을

○ 3학년 교과·비교과 활동은 대입 준비의 ‘화룡점정’

학생 A와 B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3학년 때도 충실하게 교과와 비교과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3학년의 학생부 반영 학기는 재학생의 경우 1학기로 한정되어 있고, 대다수 수험생이 수능, 논술, 자소서 준비 등 다양하게 준비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2학년 때보다 비교과 활동을 줄입니다. 하지만 학생 A와 B는 2학년 2학기까지 부족했던 비교과 부분 등을 3학년 때 충분히 보충하고 이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잘 드러나도록 해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물론 올해는 기존 선배들과 비교하기에는 상황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학 연기 기간, 학교에서 준 자체 활동 주제에 따라 독후감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실험, 진로 관련 내용 조사를 진행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자체를 그대로 학생부에 기재할 순 없더라도 이후 등교 개학이 진행돼 비슷한

주제를 다룬 과제가 나왔을 때 해당 내용을 토대로 수업 중 연구나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격 수업 도중 진행되는 화상토론, 발표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영화에 등장하는 이 문구처럼 “현 상황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미리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 오재성 타임교육 목동 오목 대입연구소장